광주·전남 유도, 전국체전 사전경기 '굿 스타트'

이혜경·이주연 금메달 획득…광주 금 2·은 1·동 1
이광희 3경기 연속 한판승 우승…전남 금 1·은 1·동 2

광주와 전남 유도선수들이 전국체전 사전경기에서 메달 레이스에 돌입했다.

전국체전 광주대표인 광주도시철도공사 유도선수들은 최근 울산 문수체육관에서 제103회 전국체육대회(10월 7~13일) 사전경기로 열린 유도 여자일반부 경기에서 금메달 2개와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따냈다.

이혜경은 -48㎏급 결승에서 유주희(충북도청)를 지도승으로 꺾고 정상에 올랐다.

이주연은 -63㎏급 결승에서 차민지(제주특별자치도청)를 한판승으로 꺾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장한빛은 -78㎏급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결승에서 윤현지(안산시청)에 한판패, 2위에 올랐다.

김성연은 -70㎏급 준결승에서 박다운(서울 성동구청)에 한판패, 동메달을 따냈다.

신대철 광주도시철도공사 감독은 "선수들이 기대 이상으로 선전해 좋은 성적을 거뒀다"며 "오랜만에 열린 체전에서 입상 소식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전남 유도선수단은 개인전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를 따냈고 혼성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거둬들였다. 전남 유도선수단은 혼성단체전에 출전해 예선전에서 경남을 4-0으로 꺾었고, 준준결승에서 대전을 꺾고 올라온 울산을 만나 전원 한판승을 거두며 4-0으로 준결승에 진출했다.

준결승에서 부산과 치열한 접전 끝에 3-4로 아쉽게 패해 서울과 함께 동메달을 획득했다.

지난 22일 개인전에서는 이광희(여수시청)가 전남에 첫 금메달을 안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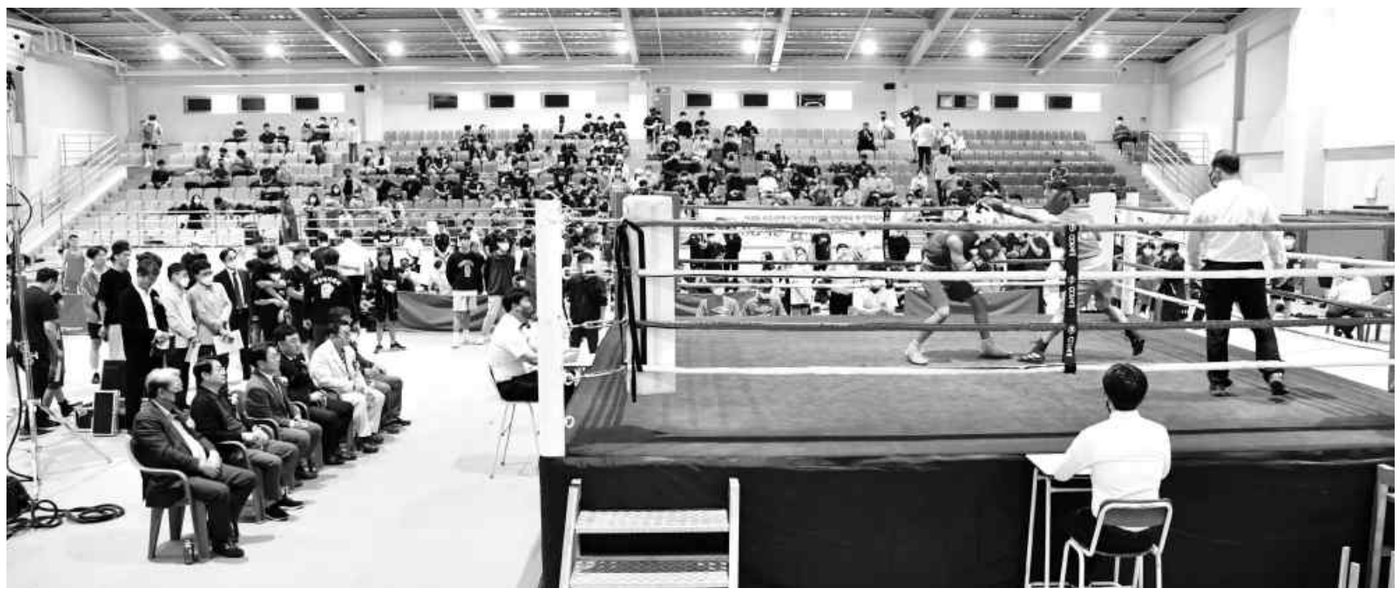
이광희는 -81㎏급 준준결승에서 결승까지 내리 3경기를 한판승으로 장식,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박다솔(순천시청)은 여자일반부 -57㎏에서 허미미(경북체육회)에 아쉽게 패하며 은메달에 그쳤다. 김혜미와 신지영(순천시청)은 각각 -70㎏과 +78㎏ 급에서 나란히 동메달을 따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이주연(광주도시철도공사·오른쪽)이 최근전국체육대회 사전경기로 열린 유도 여자일반부 -63㎏급 결승에서 차민지(제주특별자치도청)와 경기하고 있다. 〈광주도시철도공사 제공〉

3년 만에 열린 광주 생활체육복싱대회 활기 넘쳤다



1500여명 참가 성공리 마무리

광주시 복싱협회(회장 차승현)가 2022 광주 생활체육 복싱대회를 3년 만에 개최했다. 〈사진〉

광주시 복싱협회가 주최한 이 대회는 25일 광주시 동구 다목적 체육관에서 열렸다.

코로나 19 사태로 실시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3년 만에 열린 대회에는선수 260명, 관계자 등 1500여명이 참가했다. 초등부·중등부·고등부 78경기, 20대부터 50대, 여성일반경기 52경기 등이 치러졌다.

차승현 광주시 복싱협회장은 "이번 대회가 생활체육동호인들에게 건강과 자부심을 주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구례군청 엄하진 3년 연속 국화급 장사

구례전국여자천하장사대회

엄하진(구례군청)이 '제14회 구례전국여자천하장사 및 대학장사씨름대회' 여자부 개인전에서 정상에 올랐다.

엄하진이 24일 구례군 구례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국화급(70㎏이하) 결승전에서는 김주연(화성시청)에게 밀어치기로 한 점을 내준 뒤 연속 잡채기를 성공시키며 우승을 확정했다.

엄하진은 이로써 여자천하장사대회에서 3년 연속 국화급 최강자 자리를 지켰다.

김채오(괴산군청)는 여자 1부 매화급(60㎏ 이하) 결승전에서 이재하(안산시청)를 2-1로 물리치고 시즌 3관왕을 달성했다.

앞서 열린 여자 2부 개인전에선 매화급 노은수(경상남도씨름협회), 국화급 김채린(부산광역시씨름협회), 무궁화급(80㎏ 이하) 양현수(경상북도씨름협회)가 체급별 1위를 차지했다.

여자 학생부에선 매화급 한혜정(용인대), 무궁화급 김지영(영남대)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제14회 구례전국여자천하장사 및 대학장사씨름대회' 여자부 개인전 국화급 1부에서 우승한 구례군청 엄하진. 〈대한씨름협회 제공〉

한국 근대5종 남자계주서 금메달
광주체고 한소미 여자계주 은메달

U-19 아시아선수권

한국 근대5종이 19세 이하(U-19)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남자 계주 금메달과 여자 계주 은메달을 추가했다.

이기범(부산체고)과 이주찬(서울체고)은 24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열린 대회 남자 계주 경기에서 합계 1093점을 획득, 카자흐스탄 팀(1068점)을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21일부터 열리고 있는 U-19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는 근대5종(펜싱, 수영, 승마, 육상, 사격) 중 승마를 제외한 4개 종목 성적으로 순위를 가린다.

이기범-이주찬은 펜싱 랭킹 라운드와 레이저 런(육상+사격)에서 1위에 오르며 금메달을 합작했다.

여자 계주에서는 주유정(부산체고)과 한소미(광주체고)가 898점을 기록, 카자흐스탄 팀(952점)에 이어 2위에 올랐다.

한국은 앞서 20일까지 알마티에서 열린 성인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출전국 중 가장 많은 금메달 4개 등 총 8개(금4·은3·동1)를 가져온 데 이어 U-19 대회에서는 금메달 3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를 따냈다.

/연합뉴스

근대5종 U-19 아시아선수권 남자 계주에서 우승, 1등 시상대에 오른 이기범과 이주찬. /연합뉴스

한국 여자농구 월드컵 12년 만에 승리

강이슬 37점…보스니아에 99-66

한국 여자 농구대표팀이 국제농구연맹(FIBA) 월드컵에서 12년 만에 승리를 거뒀다.

FIBA 랭킹 13위 한국은 24일 호주 시드니의 시드니 슈퍼돔에서 열린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26위)와의 조별리그 A조 3차전에서 99-66으로 이겼다. 22일 중국(FIBA 랭킹 7위)과의 1차전에서 63점 차로 대패하고, 23일 2차전에선 벨기에(5위)에 23점 차로 졌던 한국은 2연패 뒤 대회 첫 승을 신고했다.

특히 한국은 2010년 9월 체코 대회 때 일본과의 경기(65-64) 이후 12년 만에 여자 농구 월드컵 본선에서 승리를 기록했다.

8강에 진출해 8위로 마친 2010년 이후 2014년과 2018년 모두 월드컵에 출전했으나 3패로 돌아섰던 한국은 12년 전 선수로 월드컵 8강 진출을 이끌었던 정선민 감독의 지휘 속에 값진 승리를 거뒀다.

12개 나라가 참가하는 이번 대회에선 조별리그 각 조 4위까지 8강 토너먼트에 진출한다.

미국(1위), 벨기에, 중국, 푸에르토리코(17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와 함께 A조에 편성된 한국은 미국(3승), 중국(2승 1패)에 이어 중간 순위 3위에 올랐다. 다만 벨기에와 푸에르토리코는 한 경기를 덜 치렀다.

대표팀은 26일 FIBA 랭킹 1위 미국과 4차전 이후 27일엔 A조에서 랭킹이 더 낮은 또 다른 팀인 푸에르토리코와 대결을 앞두고 있어서 승수 추가와 8강 진출의 가능성을 남겼다.

강이슬이 3점 슛 7개를 포함해 37점을 몰아치고 리바운드 8개, 어시스트 5개를 곁들여 승리에 앞장섰고, 박혜진이 16점 7리바운드, 박지현이 13점 6어시스트 5리바운드, 김단비가 10점 8어시스트 6리바운드를 보탰다.

/연합뉴스

즐거운 문화 산책

LOTTE CINEMA | 충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공조2: 인터내셔날
2관	공조2: 인터내셔날
3관	공조2: 인터내셔날, 극장판 엄마 까투리: 도시로 간 까투리 가족
4관	늑대사냥
5관	늑대사냥
6관	공조2: 인터내셔날, 블랙폰
9관	늑대사냥, 애프터: 에버 해피, 15썬더버드
7관 씨네커플	애프터: 에버 해피, 헌트 프린세스 아야, 한산: 용의 출현 아이의 노랫소리를 들려줘
8관 씨네커플	육사오(6/45)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GAC기획_포시즌 실내악시리즈 ③
트리오 오원
일시 : 2022. 10. 17.(월) 19:30
장소 : 광주광역시청 대회의실
문의 : 062-613-8235

광주시립합창단 제190회 정기연주회
가을저편
일시 : 2022. 10. 12.(수) 19:30
장소 : 빛고을시민문화관
문의 : 062-613-8245